

## 꼼꼼하고 섬세한 신입퍼블리셔 우민주입니다.



**우민주** 1998년 (26세/만 25세) | 여

✉ woozu5959@naver.com

☎ 010-8610-2041

☎ -

🏠 (08813) 서울 관악구 신림로21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2,600~2,800만원	서울전체 정규직	총 2건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7.03 ~ 2021.02	졸업	우석대학교 (전북)	항공서비스학과	3.63 / 4.5
2014.03 ~ 2017.02	졸업	금천고등학교	문과계열	-

###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2.09	자격증/면허증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2020.10	자격증/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2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2021.03	자격증/면허증	워드프로세서1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2019.08	자격증/면허증	2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Portfolio.pdf   14MB <a href="https://woozu59.github.io/cobi_ro/html/portfolio_2.html">https://woozu59.github.io/cobi_ro/html/portfolio_2.html</a>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e-커머스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저는 e-커머스 관련 스타트업 회사에 1달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회사가 사라지면서 단기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대표님의 비서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진행도 전달과 제품의 유통흐름에 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웹사이트 제작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할 때 마다 미흡한 부분이 보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품의 사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구매한 제품의 사이트인지 알 수 없다는 인상이 가장 컸습니다.

또 제품에 관한 시각적인 정보도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아쉬움을 느끼다 문득 내가 직접 사이트를 제작해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지만 배우고 싶다는 열정은 점점 커져 무작정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 책을 구매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책을 읽으며 조금씩 공부하였지만 독학으로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포기할까 싶었지만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대로 배워보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컴퓨터학원을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만 알고 있던 분야의 직종이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공부하며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기획 및 구성을 해보면서 같은 기획이여도 퍼블리셔의 능력에 따라 코드의 간결성이나 웹의 구현이 확연히 부드럽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웹 구조를 코드로 구현하는 것에 흥미와 만족감을 느껴 퍼블리셔로서의 꿈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퍼블리셔가 되기 위해 매일 학원에 30분 일찍 도착하여 책을 읽으며 복습하였고 코로나로 일주일동안 학원에 가지 못하였을 때에는 일주일치의 진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집에서 혼자 코드를 공부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학원을 수료한 이후에도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의 저에게 꾸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경험하며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퍼블리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가 저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항상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포트폴리오에 적용시켜주시고 결만 예쁘게 꾸며놓아도 회사에 취업하여 스스로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며 학원을 수료한 후 선생님의 도움 없이 직접 새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의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효과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원페이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slick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또 aos를 이용하여 강조할 만한 문구나 컨텐츠가 위에서 아래로 나타나도록 적용시켰고, 푸터 또한 숨어져 있다가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시 자연스럽게 위로 나타나도록 jquery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os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고 숨겨놓은 푸터가 나타나지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기 위해 차근차근 작성한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드를 살펴보아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고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호기롭게 도전한 것이 후회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검색을 해보며 오류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고 학원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참고 하면서 오류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오류의 원인은 단순히 스크롤 감지문제로 aos와 푸터의 jquery가 적용되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문제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생각에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조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보단 부족한 공부를 좀 더 한 후 이해하며 제작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 잠시 제작을 멈추고 이주일동안 책을 보며 집중적으로 코드를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배운 기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없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로 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욕심부리지 않고 최대한 저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새 포트폴리오 기획을 위해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참고하며 현재 저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지 천천히 나열해보았고 또 적용해보고 싶은 기능이 있으면 검색하여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새로 알게 된 기능에 대해서는 잊지 않도록 노트에 세세하게 메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마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직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퍼블리셔가 되고싶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성격의 장단점]

저는 의사소통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부 시절 학과장님의 추천으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저의 의사소통능력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학과의 '어피린스매니저'로 학과의 학생들이 학과 규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서비스를 배우는 학과의 특성상 외적으로 단정해보일 수 있도록 과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그 외의 규칙도 엄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과 규칙들이 너무 융통성없고 학생들의 불만이 생길 만한 사항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무리하게 강요하면 학과생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학과에 대한 반발심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동기들과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학생회장에게 전달하였고 학생회 임원들과 규칙 조정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다양하게 모아 학과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냈습니다.

학생회 임원들과 학생회장도 저의 의견을 통해 학과 규칙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바로 규칙 조정에 대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후 규칙 조정에 대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규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타당한 이유를 들어 학생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의한 의견들 중 학과 과목을 전공시간에 입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학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과목을 입고 서비스를 배우며 모의면접을 보는 등의 다양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하여 설득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규칙을 조정한 결과 학생들은 큰 불만없이 학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대학총장님께 좋은 인상을 드려 학과 대표로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장점인 의사소통능력을 통해서 학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퍼블리셔로서 동료들과 유연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할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한 후에 결정을 하지만 혼자 일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면 신중해지지 못하는 편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시 항상 후회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 결정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며 차분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만약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해볼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